



강원도정 소식

직불금 신청 면적 늘고 농가 줄고

신청자 정보공개 등 거쳐 12월 지급 예정

강원도가 2011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신청을 마감한 결과 신청 면적은 지난해보다 다소 늘고, 신청 농가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3만5,434농가로 지난해 3만6,103농가보다 1.9%(669농가) 감소한 반면, 신청면적은 39,649ha로 지난해보다 0.4% 증가(161ha)했다.

이번 신청면적이 증가한 것은 농업경영이 어려운 농가가 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고, 해당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가가 직불금을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도 담당자는 설명했다.

강원도는 쌀 직불금 신청이 6월말로 마무리됨에 따라 7월중에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신청자 정보공개를 하고, 8월중 신청자에 대한 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이어 이행점검 후 12월에 고정직불금(예산 274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원도 담당자는 쌀 직불금 신청자가 등록증을 수령 후,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9월까지 등록사항 변경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광호 기자

황군수 일자리공약 '우수상'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우수사례 경진대회 ... 명태가공산업 높은 평가

황종국 고성군수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11년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일자리공약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민선 5기 1주년을 맞아 전국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청렴공약분야, 일자리공약분야, 매니페스토활동분야, 공약이행분야 등 4개 핵심 분야에 대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에서 103개 사례가 공모돼, 지난 6월 17일 1차 서류심사를 거쳐 67개 지자체 73개 사례를 선정했다. 이

어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2011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고성군은 '명태가공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군 지역 일자리공약 부문 우수상을 차지했다.

고성군은 금강산 관광 중단과 어족자원 고갈로 지역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 차원의 명태 직거래를 통해 명태가공산업 육성을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해풍건조명태 브랜드개발과 일자리창출 등으로 주민소득증대에 도모한 점과 명태산업 육성기반 조성을 위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 명태의 본고장 명성 회복과 명태가공산업 중심지로서의 동기를 부여한 점이 핵심전략으로 평가받았다.

한편 고성군은 민선 5기 8대분야 85개 정책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성과단소별로 공약사업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약 추진상황을 공개할 계획이다.

최광호 기자

고속화철도 기본계획 용역비 반영

국토해양부 10억원 편성 기획재정부에 요구 ... 송의원 "증액 노력"

동서고속화철도 춘천~속초 구간 사업을 위한 예산이 '기본계획 조사용역비' 형태로 사상 처음 10억원이 편성됐다.

송훈석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안으로 10억원이 편성돼 정부예산안을 최종 편성하는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요구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는 당초 강원도가 요구한 액수보다는 부족하지만,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예산이 정부 해당부처 예산안에 정식 반영

돼 기획재정부에 요구되기는 이번이 사상 처음이어서 의미가 크다.

민주당 송훈석 의원(속초-고성-양양)은 "그동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수차례 예산협의를 하고 예산반영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내년 예산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10억원이 반영돼 지난주 기획재정부에 공식적으로 예산요구를 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향후 일정과 관련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다음달 20

일까지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그 결과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반영을 검토해 최종 정부예산안에 편성한 뒤 예산심의·확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로 넘겨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훈석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정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할 때 증액 반영시켜 국회에 제출하도록 노력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광호 기자



지난 6일 고성군청에서 개최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협의회에서 부서별 업무담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한 모습으로 의견을 토의하고 있다.

음식구매·상징물 설치 필요

신병면회제도 부활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회의

13년만에 부활된 신병면회에 대한 제도적 발전을 위해 지난 6일 오후 2시 고성군청 4층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부서별 업무담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병면회제도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22사단 신병교육대 면회소 방문객 상황 및 면회객 이용대상 지역관내 숙소·식당 등을 파악해 지역경기 활성화 방안과 군부대와 협의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 5일 첫 수료식을 시작으로 면회객 면담 및 면회소 편시설 등 신병교육대 현장체험을 통해 얻어진 군부대·면회객의 의견과 개선대책방안의 해결을 위해 부서별로 추진사항 등 의견을 토의했다.

주요 토의내용은 면회대기실 여자 화장실 개선 및 음식구매, 배달 편의성 향상을 비롯해 고성군 상징물 및 포도존 설치, 공연행사시 관광홍보 경품 제공 등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22사단 신병교육대 면회소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군부대와 적극적인 협력으로 군·관의 유대를 강화시킴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승근 기자



고성군의회 해변 현지 시찰

7월 5일부터 22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21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고성군의회 의원들이 지난 7일 송지호 해변 현지시찰을 하고 있다. 군의회는 12일부터 18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박승근 기자